

5대 결사와 여성 불자의 생활

여성 불자의 신행문화를 바꾸어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교단 나아가 우리 사회에 자비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성개발원이 개원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승만경을 대중화하여 여성 불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승보살로서 여성 불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승만경 연구회를 조직하여 승만보살 10대 서원 실천운동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금 여성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파급력은 어떤 포교활동과도 비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성 불자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정법을 호지하고 교단을 외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위로는 왕비에서 아래로는 하녀까지, 어린 소녀에서 나이 많은 노파에 이르기까지, 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일아함경 청신녀품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으뜸가는 우바이들 수십 명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6년의 고행을 마친 부처님께 처음으로 유미죽을 공양한 난타에서부터 지혜 제일인 구수다라 우바이, 좌선하기를 좋아하는 수비야녀, 지혜가 밝은 비부, 설법을 잘하는 양갈사 우바이는 물론 외도를 항복 받은 우바이,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우바이, 항상 인욕을 실천하고 삼매를 닦으며, 계율을 실천하는 수많은 우바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우바이들 가운데는 이교도인 시아버지를 교화시킨 급고독장자의 딸 수마제녀와 녹자모라고 불린 녹자의 며느리 비사카, 옥야경의 주인공이 된 급고독장자의 며느리 옥야 등 수많은 청신녀가 있습니다. 비사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원녹자모 강당을 기증하여 부처님과 제자들의 수행처를 제공하였고 유녀였던 암바팔리도 암라수원을 건립하여 교단에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 경전의 기술을 보면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 불자들이 불교의 유지와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인 승만경에 이르면 이제 여성 불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중생 구제의 대원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만보살의 10대원입니다. 계를 지키고 하심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바로 이 10대원의 골자입니다. 이것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자정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삶을 다른 이웃의 행복을 위하는 삶으로 바꿔내는 쇄신의 길을 말하고 있으니 그 정신은 바로 자정과 쇄신을 위한 결사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종단에서 추진 중인 자정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수행, 생명, 문화, 나눔, 평화라는 다섯 가지 분야의 결사 운동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와 이웃, 그리고 세계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행입니다.

이와 같은 결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부대중이 함께 실천 덕목을 정하여 함께 수행하고 점검하면서 나날이 향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침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실천지침을 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결연활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청정의 날을 정하여 채식을 실천하며 10% 절약 운동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5대 결사를 실천하는 훌륭한 지침인 동시에 승만보살의 10대원을 오늘에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자각과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남녀가 따로 구별되지만 보살의 입장에서는 남과 여가 따로 없습니다. 승만경의 주인은 여성인 승만부인이 아니라 커다란 서원을 세운 승만보살입니다.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그저 승만부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살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은 바로 이 커다란 서원이며 그 서원을 묵숨이 다하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따로 없는 보살의 서원으로 5대 결사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55(2011)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